

200-68. 중국공산당사건 판결사(寫)

■ 1933년 12월 20일 경성지방법원 형사 제2부의 李東鮮 등 262명에 대한 재판 판결문서 수록

- 李東鮮 등 262명에 대하여 치안유지법 위반, 소요, 살인예비, 살인교사, 방화, 방화미수, 방화예비, 방화교사, 주거침입, 강도, 강도미수, 강도예비, 강도상해, 강도치사, 과실치사,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전신법 위반, 불법감금약취, 사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왕래방해, 총포화약단속법 위반 등 죄명으로 선고한 판결내용이다.
- 선고형량을 보면 사형 22명, 무기징역 5명, 징역 15년 5명, 13년 1명, 12년 9명, 10년 13명, 8년 6명, 7년 21명, 6년 27명, 5년 25명, 3년 6월 19명, 3년 45명, 2년 6월 14명, 2년 28명, 1년 6월 5명, 1년 1명으로, 이 중 7명에게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 선고에서 그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 750일 34명, 740일 24명, 700일 39명, 650일 9명, 630일 1명, 620일 9명, 600일 13명, 550일 37명, 540일 5명, 500일 9명, 400일 18명, 360일 1명, 350일 8명, 320 1명, 300일 3명, 250일 1명, 200일 4명, 150일 2명으로, 얼마나 많은 시일을 미결상태에서 구금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 이들은 출신지역, 즉 본적을 함경도에 두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를 점하여 227명이나 되고, 그 밖에 함경남도 21명, 황해도 3명, 강원도 5명, 평안남도 3명, 경상남도·경상북도·경기도 경성이 각 1명을 차지하고 있어, 주로 함남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소지를 보면 만주의 吉林省이 241명으로 가장 많으며, 주거부정이 21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수치로 볼 때 주로 함북사람이 만주에 거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문서철명과 같이 중국공산당사건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재판 관할도 경성지방법원이고, 관여 검사도 조선총독부 검사인 것으로 미루어 편의상 중국공산당사건이라고 한 것 같다.
-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1910년 8월 29일 韓日合併이 있고 난 뒤 조선 내외에서 누차 대·소의 조선독립운동이 봉기하고, 제1차세계대전의 말기인, 1917·18년경 미국 대통령 윌슨에 의하여 제창된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조선독립운동의 기운도 고조되어 1919년 3월 1일 조선독립만세소요사건이 발발, 민족운동의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 무렵 上海에서는 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었다. 한편으로는 세계대전의 후반기에 해외에 망명한 레닌 등 러시아 공산주의자의 활동은 전쟁을 내란으로 전환시켜 1917년 3월에 러시아 로마노프王朝을 무너뜨리고 동년, 11월에 勞農政府를 수립하였는데, 동 정부는 국제공산당을 장악하여 세계적화에 매진하였다.
- 공산주의적 민족해방론은 조선에도 파급되어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1920년 1월에는 중국 上海에서 李東輝등에 의하여 高麗共產黨이 결성되었으며, 1923년 6월에는 金燦 등에 의해 京城에서 共產青年會가 조직되었으나 얼마 가지 못하여 해체되었다. 그 뒤 1925년 4월 17일 金燦·金在鳳 등이 京城府 黃金町 1丁目 中華料理店 雅敍園에서 회합, 조선으로 하여금 帝國의 國體를 變革하고 조선 내에 공산주의제도를 실시할 목적으로 비밀결사 朝鮮共產黨을 조직하였다.
- 다음 날인 4월 18일 薰井洞 朴憲永의 집에서 다시 회합하여 高麗共產黨青年會를 조직하였으며, 共產黨은 國際共產黨, 青年會는 國際共產黨青年會의 승인을 얻어 활동하였다. 조선공산당은 東京에 日本部, 上海에 海外部를 설치하고, 滿洲에서는 1926년 5월 曺奉岩·金東明·崔元澤·尹滋英·金哲勳·金河洙 등 6명이 吉林省에서 회합하여 高麗共產黨青年會 滿洲總局을 설치하였다.



- 그 후 黨 및 會 내에 火曜會派, ML派, 서울派, 上海派 등이 생겨 各派 간의 파벌 투쟁이 이어지고, 1925년 11월 이후 수차의 검거로 세력이 약해졌다. 국제공산당 및 국제공산 청년회도 1928년 12월 7일 이들의 승인을 취소하고, 조선공산운동의 결점을 지적, 파벌 없는 노동자·농민을 토대로 하는 조선공산당 재조직을 지령한 바 있다.
- 이와 같은 정세의 와중에 1929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돌발한 한일학생충돌 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 학생의 시위운동이 봉기하였다. 이러한 형세는 間島에까지 파급되어 火曜派 滿洲總局에서는 1930년 3월 1일 조선독립선언소요 기념일을 기하여 조선의 독립 및 공산화운동의 원조를 목적으로 東滿 및 北滿 에 3·1운동 11주년 기념준비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지도하에 在滿 農民·學生으로 하여금 시위운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北滿에는 總局 組織部長 廉桂煥, 東滿에는 宣傳部長 張周璉을 지도원으로 파견하였다.
- 이로부터 이 공산당사건이 잉태하고 발전하던 중 검거되어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문헌은 총 270쪽의 인쇄단행본으로 되어 있으며, 활자도 선명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기술내용이 상세하고 사건의 전후사정과 동향까지 수록하고 있어, 조선공산당사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